

# 감

우하라

오순도순 감을 먹다가  
아빠한테 감으로 시를 지어 보라고 했다.

그러자 아빠가  
감.. 감..  
감이 없는데..  
감, 감, 감.  
이제 한다! 잘 들어!

우리 가족은 푸하하 웃었다.

동생은  
‘엉터리 시다! ㅋㅋ.’

엄마는

‘시를 쓰려고 했는데 감이 안 온다! 이런 거 하지.’

나는

‘아빠 언제 해? 얼른 해!’

아빠는 아직도

‘감, 감, 감....’

감감무소식!